



한국의 도서관에 있어서의

분류 갱신 문제

— 콰버트 · 버게스 —

새 분류법이 하나 출판되면 그럴 때 마다 많은 도서관에서는 분류를 다시 고치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이르기게 된다. 듀이 십진 분류법 제 15판의 한국어 번역판의 출판도 NDC, KDC, 또는 곳 곳에서 창작해 낸 십진 분류법 등으로 분류(分類)해 온 여러 한국 내의 도서관으로 하여금 같은 관심을 갖게 했다. (우리가 아는한, 한국의 여러 도서관에서 사용되는 분류법은 순 기호(純記號) 즉 숫자이며 1000 구분 이상을 포함 할때 그 구조는 십진식이다). 그러나 재분류란 경솔히 시작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예를 들면 참고 봉사(Reference service)의 설정과 같은 다른 사업에 배풀어질 수 있는 직원의 시간과 노력에 관련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타우버(Tauber)는 재 편목은 그것이 목록으로 부터 카드를 뽑아 내다가, 지우고, 다시 쓰고, 하는 등의 절차를 포함 하므로 처음 편목하는데 비하여 그 배나 비용이 더 드는 것이라고 추산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일에 관하여서 도서관원을 돕기 위해 필자는 결정에 선행(先行)하여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요건들을 열거코자 하는 바이다.

1. 장서의 양(量) 명백히 장서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재 분류는 더욱 실행성이 많은 것이다. 보통 5,000권 이하의 장서는 직원의 수를 느리지 않고서도 대공중(對公衆) 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 재 분류 될수 있는 것이다.
2. 편목 상의 형편 만일 장서가 편목되지 않은 체이거나, 다시 편목되어야 할 경우에 있어서의 재 분류라던 만족스러운 복복을 구비한 도서관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경제적인 것이다. 편목의 일은 어차피 각 책(冊)을 하나 하나 다루어야 되는 것이며, 재 분류가 그와 동시에 수행 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3. 이용 가능한 직원수 정규의 직원은 그 도서관의 정규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매져 재 분류 사업은 추가적인 직원의 채용을 요하게 되는 것이다. 재 분류에 종사할 만큼 유능한 직원을 구할 수 있는가?
4. 현 분류법의 질(質)의 양부(良否) 매져 재 분류는 새 분류가 낡은 것보다

우수하다고 느껴지는 까닭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로서 제기(提起)되는 것은; 어느 정도로 새 분류가 우수한가? 또는 낡은 방법이 심각히 봉사(阻害)하고 있는가? 등이다.

타우버²는 여러 도서관에서 폐기(廢棄)된 분류 방법들이 다음 7개 조항의 비판을 받아 왔음을 지적하였다:

- a) 예기 되는 방법에 있어서의 분류항목이 너무 광범위한 점 (비 세분적인 점)
- b) 빠진 분류항목
- c) 근대 사상에 대한 항목의 미비
- d) 학적 분야(學的分野)의 분류에 대한 부적합성(不適合性).
- e) 버린 분류법의 불충분한 개정 빈도
- f) 분류 항목 간의 불균형성(不均衡性)
- g) 분류 항목의 비합리적 나열 등이다.

위의 비판이 허다히 미국내의 사서들에 의하여 DDC에 가(加)해졌고 L. C. 분류로 변경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장 일세³씨도 DDC의 약점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분류의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확실히 이상의 점들이 조심성 있게 고려되어야 하겠다.

5. 서지적 경제성 미국의 서지적 자료에 대한 접근(接近)이 있는 도서관에서는 양서에 대한 DDC 번호를 줌에 있어서 손쉽게 도움을 받을수 있는 것이다. 만일 도서관이 많은 예산을 배당하여 영서(英書) 구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서지자료⁴의 입수가 가능하다면, DDC로의 전환은 서지상의 경제라는 점 만을 고려할 때 현명하다 할 수 있는 것이다.

6. 봉사 형편 도서관의 분류는 다음 두 가지 주요한 기능을 위하는 것이다.

첫째, 분류는 도서관의 배가(排架)와 자리 찾기를 위한 고안(考案)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거의 어떤 방법이던지 예를 들어, 책의 높이를 전주어 배가한다 할지라도 이 목적 만의 달성을 위해서는 상당히 만족스럽다 할 수 있다.

둘째, 분류는 같은 주제를 다룬 책들을 서가 위에 한곳에 모아 놓음으로써, 또는 몇몇 분야의 지식에의 어느 유사(類似)한 도입 방법을 다룬 책들을 한곳에 모음으로써 독자들 및 그들을 돕는 공공 봉사 사서를 돕는 것이다. 그러나 서가에의 자유로운 접근이 독자들에게 금지 되는 때에는 이 분류의 둘째 목적이 크게 잃어지는 것이며, 분류법의 성능(性能)의 양부(良否)는 그렇게 문제 되지 않는다.

아마 그렇다면 새로운 분류법에 관심이 있는 도서관은 재 분류와 동시에 아니 그보다 앞서서 분류가 사용자의 요구에 순응(順應)시켜 저도록 방도가 강

구(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도서관 자료의 제 분류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절실한 이유가 없는 한 제 분류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모든 분류가 지식의 가지 가지 분야를 다룸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결점을 노정(露呈)하고 있으므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현 분류법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세 방법 역시 완전한 해결책을 가져오지 못 함을 절실히 깨달아야 될 것이다.”⁵ (명재휘 역)

(註) 1. Maurice F. Tauber, *Technical Service in Librar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3. P. 262.

2. Ibid., P. 265.

3. 장 일세, *학교 도서관 운영법*, 학교 도서 간행회, 1959. P. 58.

4. For Example, *National Union Catalog*, or *Cumulation Book Index*, or *Standard Catalog series*.

5. Richard Shoemaker, “Reclassifying the John cotton Dana Library of the Newark College of Rutgers University,” *Journal of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5:19-23. Winter, 1949.



筆者 R. S. 버제스(Robert Stone Burgess)氏는 뉴욕 州立大學 圖書館學科 現職科長으로서 4292年 2月 美 教育使節團의 一員으로 來韓하여 USOM의 圖書館 專門家兼 延世大學校 圖書館學科 教授로 있는 분이다.

原 稿 募 集

本誌에 掲載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募集하오니 玉稿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圖書館事業에 關係되는 論文
2. 뉴스 資料
3. 其他

曆勘 每月 15日

(編輯室白)